

## 한전공대 학교법인 창립총회 4일 예정...대학설립 본궤도

한전, 사업 추진 필요 자금 600억 원 1차 출연키로  
 이르면 올해말 법인 설립 · 내년 캠퍼스 건설 착공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세계 최고수준의 에너지 특화 대학을 꿈꾸는 한전공대 설립작업이 본격 시작된다.  
 한전은 오는 4일 서울에서 한전공대 학교법인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한전은 지난 달 8일 이사회를 열어 한전공대 설립기본계획을

의결했다. 한전은 학교법인 설립 및 초기운영, 캠퍼스 설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600억원을 1차로 출연키로 했다.  
 한전이 학교법인 창립총회를 거쳐 교육부에 학교법인 설립을 신청하게 되면, 교육부는 3개월 내 처리하게 된다. 이 경우 올해 말 학교법인 설립이 가능해 내년부터 대학

건설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전공대 학교법인 이사장은 김종갑 한전 사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법인이 설립되면 역량 있는 총장과 교직원 공모와 채용 등에 나설 계획이다.  
 부영주택이 지난 달 9일 이사회를 열어 대학부지로 무상기부하기로 약속한 나주 부영cc 부지 40만



한전공대가 들어서는 나주 부영cc.

m<sup>2</sup>의 소유권은 학교법인이 갖게 된다.  
 골프장 소유권 이전은 한전공대

학교법인이 설립되고 한전공대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마무리된 후 실시계획인가 신청

전인 2020년 1월 완료할 계획이다. 한전공대는 30년 내 세계 최고수준의 에너지 특화 공과대학을 실현한다는 게 성장 로드맵이다. 학생규모 1000명, 교수진 100명이며 학생은 대학원 60%와 학부 40%로 구성된다.  
 지난 4월에는 전남도와 나주시가 대학발전기금으로 한전공대가 개교하는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00억원씩 총 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이행협약도 체결했다.  
 한전 관계자는 "다만 학교법인 창립총회 일정이 최종 확정된 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류세 인하 끝나기 전에"...복직하는 주유소 유류세 인하 종료로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의 한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려는 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 함평군, 방범 · 방재 · 교통 연계 도시안전망 구축 국토부 주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선정

함평군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1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은 방범, 방재, 교통 등 개별 운

영 중인 지자체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는 도시안전망 조성 사업이다.  
 군은 국비 6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군 CC-TV통합관제센터 내 스마트시

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기반이 구축되면 합평지역 187개소, 721대의 CC-TV 영상이 통합돼 112 범죄영상지원, 112 현장출동지원, 119 응급구조지원 등의 재난상황 긴급 대응지원이 가능해진다.  
 특히 어린이, 치매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사고의 골든타임 확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함평=김광춘 기자

### 전남 바이오 · 헬스케어소재산업 기업 체질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선정...15개 기업 지원

전남 바이오 · 헬스케어소재산업 기업들의 체질을 강화해 일자리 창출과 매출신장을 위한 지원사업이 본격 진행된다.  
 1일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중소기업부 지역주력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수혜기업으로 장수식품 등 도내 15개 우수 바이오 기업을 선정했다.  
 전남의 바이오 · 헬스케어소재

산업은 바이오식품, 화장품, 농생물소재, 기능성소재 등의 분야에 집중돼 있다.  
 센터는 '전남 바이오헬스케어소재산업 기업 체질 강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목표로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선도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기업지원사업은 국비 2억원을 지원금으로 해당 수혜기업이 효율

적인 사업을 운용할 수 있는 컨설팅과 국내외마케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혜기업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신규일자리 창출하고 연간 25억원 이상의 매출을 증가시키는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을 주관하는 (재)전남식품산업연구소 신상식 센터장은 "전남 바이오헬스케어소재 개발과 제품 생산으로 좋은 일자리도 만들고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올해 전남해수욕장 안전사고 '제로'...3년 연속 무사고

54곳 운영...방문객 120만명

전남도가 올여름 65일간 54개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아 3년 연속 무사고를 이어갔다.  
 1일 도에 따르면 올여름 전남지역 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은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120만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완도가 61만4000명

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 19만8000명, 고흥 7만6000명, 보성 7만5000명, 신안 6만7000명 등이다.  
 특히 올해는 해경의 안전관리 인력 파견(상주근무제) 폐지로 안전사고가 우려됐으나 시·군에서 안전관리요원 289명을 배치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무사고를 이끌었다.  
 또한 섬 갯벌 축제, 전국 비치발리볼 및 해양레저스포츠대회 개

최, 오토·카약교실 운영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개최해 관광객 증가를 이끌었다.  
 이상심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해수욕장 폐장 후에는 수상안전요원이 상주하지 않으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2020년에도 편의시설 개선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노 · 사 간에 갈등이 있나요?

- 전남에는 노사민정 사적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 노사가 서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무료 지원해 드립니다.
- 임금, 퇴직금, 해고, 산재 단체교섭 노조활동, 노동문제로 애로사항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 등 누구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